

## 비발디파크, 파타고니아와 스키장 팝업 스토어

충천 비발디파크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함께 스키장에서 2월 13일까지 팝업스토어 '스노우 하우스'를 운영한다. 블루스 슬로프에 위치한 '스노우 하우스'에서 파타고니아 스키복 렌탈, 무상수선, 휴식 라운지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시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의류 수령 연장 테마의 '리프트'(Lift) 이벤트도 진행한다.



##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 논란

# “노빠꾸” 정용진 발 ‘멸공’...정치권까지 이슈

(No Back)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공산주의자를 멸한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피코크 잭슨피자 게시물에서 시작된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이래로, 국민교육헌장 인용, 노백(No Back, 물러나지 않고 돌진한다)을 의미하는 "노빠꾸" 멘트로 관심을 끌더니 이제는 정치권으로까지 퍼지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불러온 '멸공' 논란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으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정 부회장과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노빠꾸' 케이크,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달걀, 파,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가 눈에 띈다(왼쪽부터). 사진출처: 정용진 윤석열 인스타그램

정부 대중정책 비판기사 캡처 게시 정용진 “중국에 관심無...오해말라” “검찰에 통신조치 당해” 내역 공개 윤석열 등 멸치+콩 사진 올려 가세 민주당 “中 관련 기업에 영향” 비판

### ● ‘멸공’ 선봉에 선 용진이형

정 부회장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라는 멘트와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를 인스타그램 측이 삭제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인스타그램 측이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하고, 삭제 게시물이 6일 오후 다시 노출되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 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이 항의의 표현으로 멸공, 승공통일, 반공 방침,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이것도 지워라, 이것도 폭력 조장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하무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

이 게시물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그룹의 중국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 7일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들어간 게시물을 삭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북한이 동해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기사를 캡처하면서 “내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서

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라고 했다. 이어 “괜히 나랑 중국을 연결시키려 하지마라. 난 그쪽에 관심 없다. 멸공은 가까운 데 있다고 배웠다”며 “캡처 기사에 중국 지도자 얼굴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과 11월 검찰로부터 두 차례 통신조치를 당한 내역을 알렸다. 정 부회장이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요청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 정 부회장 통신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8일에는 인천지방검찰청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통신 정보를 건넸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애기데”라고 썼다.

### ● 정치권 이슈로 번진 ‘멸공’

이런 상황에서 8일에는 정 부회장의 멸공이 정치권 이슈로 넘어왔다.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난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정 부회장이 조 전 장관의 멘트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리스펙’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본래는 존경한다는 의미지만 사실상 조롱의 의미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멘트에 언급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8일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본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수 멸치와 약콩을 든 사진을 달걀, 파, 멸치, 콩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렸다. 이에 윤 후보가 정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샀다는 점에 착안해 이른바 멸공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달걀과 파에서 파생되는 달파라는 용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인 달을 활용해 친문 세력을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와 정 부회장이 정

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거부감을 교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과 우려가 커진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과 함께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콩, 자유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떡볶이까지”라며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밖에 없을 텐데. 멸공! 자유!”라고 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 부회장을 향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연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세계는 앞으로 중국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런 한 마디가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멸공과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이 멸치콩을 들었기에 나는 왼손에 파를 들었다. 좌파”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SPC, 웨이크백 말레이시아 사업권 획득 2023년 첫 매장 오픈...“파리바게뜨와 시너지 기대”



SPC그룹이 버거 브랜드 웨이크백(사진)의 말레이시아 사업권 획득했다.

미국 웨이크백 엔터프라이즈와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 사업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023년 말레이시아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웨이크백 본사가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의 파트너로 현지 기업이 아닌 SPC그룹을 선택한 것은 이미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웨이크백을 운영하면서 보여준 뛰어난 사업역량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SPC그룹은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국내 1호점을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총 2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첫 매장을 연 이래 오차드로드, 닐로드, 가든스하이웨이 등 핵심상권에 속속 문을 열며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웨이크백 파트너사 중 유일하게 번(햄버거빵)을 직접 생산해 매장에 공급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R&D)과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크백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 에버랜드, 고객 소장 ‘굿즈’ 전시회 개최 자연농원 시절 굿즈도...시대별 배지·가이드북 등 선보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용인 에버랜드는 고객들이 소장한 희귀한 에버랜드 굿즈를 모아 2월 6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

에버랜드 그랜드엔포리엄 상품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농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에버랜드 고객들이 갖고 있던 굿즈를 선보이는 행사다. 에버랜드가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한 ‘에버굿즈 자랑대회’ SNS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굿즈를 일반에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들이 소장하고 있는 에버랜드 굿즈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려 자랑하는 ‘에버굿즈 자랑대회’는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며 약 400명의 고객이 응모했다. 에버랜드는 그 중에서 애정도, 다양성, 희귀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상 15명을 선정했고 시대별 배지, 가이드북, BGM 컬렉션, 레니·라라 캐릭터 굿즈, 직접 제작한 페이퍼드 플로트카 등 고객들이 소장한 다양한 굿즈들을 모아 전시회를 마련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롯데케미칼, 인니에 4조7000억원 투자...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조성한다

인니 정부, 수입관세 인하 등 지원 연간 20억 6000만 달러 매출 예상



롯데케미칼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라인 프로젝트 업무협약 서명식 및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EPC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대표이사 김교현 부회장)이 총 사업비 39억 달러(약 4조7000억 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라인(LIN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롯데케미칼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업무협약 서명식 및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진 뒤 롯데케미칼타이탄의 자회사 LCI의 이관

호 대표가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플랜트사업본부장과 각각 EPC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료 수입관세 인하 지원,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각종 설비 및 기자재 수입관세 면제 및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라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이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과 합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반텐 주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을 연간 100만 톤, 프로필렌(PP) 52만 톤, 폴리프로필렌(PP) 25만 톤 및 하류 제품 생산을 통해 연간 20억 6000만 달러(약 2조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동남아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를 선제적으로 예측해 2010년 말레이시아 최대 석유화학사인 타이탄케미칼(현 롯데케미칼타이탄)을 인수했다. 이어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내 납사크래커(NCC, 나프타 분해 플랜트)를 건설하고 기존의 폴리에틸렌(PE) 공장과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는 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원성범 기자 sereno@donga.com

## 전자랜드 ‘2022 IT 아카데미 어워드’ 실시



전자랜드가 31일까지 ‘2022 전자랜드 IT 아카데미 어워드’ (사진)를 실시한다. 삼성 전자와 LG전

자의 2022년 노트북 신모델 및 인기모델을 삼성카드 결제 시 10만 원 캐시백 혜택을 준다. 또 전자랜드 조립 PC인 순정PC를 100만 원 이상 삼성카드 결제 시 금액별 최대 17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노트북과 순정PC를 삼성제휴카드 또는 스페셜 롯데카드로 구매 시 최대 36개월의 장기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